

**건축물 용도에 따른 내 외부 마감 재료의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ior &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by Architectural Usage of the Building

김소희^{*} / Kim, So-Hee

Abstract

In modern days when architectural materials have grave impacts on overall design expression, materials for architecture, especially finishing materials have become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the design expression. This study classifies Korean modern architecture into the service facility for business, education, religion, cultural assembly and residence, and evaluates each finishing material mainly used in exterior, lobbies and entrances of the building since the 1970's. When being applied social images into firstly selected materials, the scopes for material selection will be more narrowed down in more practical way. High tensile materials are suitable for public and active space and low tensile are for private and static area. This principle enables us to use architectural materials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which express the whol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키워드 : 마감 재료, 용도별, 위치별, 내부, 외부, 이미지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로마시대의 건축적 번성을 이루한 조적식 로만 콘크리트를 이용한 보울트(vault) 구조의 개발, 금속과 유리를 이용한 하이테크까지 건축에 있어서 새로움에 대한 충격은 늘 새로운 재료, 신기술, 신공법과 함께 비롯된 것이었다. 건축에 대한 경험은 일반인에게 재료에 의해 표현되는 이미지에 대한 일차적 반응일 수 있으며 건축가에게 있어서도 재료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하나의 형태 결정 인자로 작용하여 외관을 결정하고 공간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안토니아데스(Antoniades)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재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재료는 건축의 살이자 뼈이며 피부이다. 그것들의 적절한 사용과 선택은 건축가가 일생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재료의 선택은 건축가와 건축에 따라 다양하다. 근대건축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재료의 사용에 있어 낯과 밤처럼 서로 혼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루이 칸(Louis Kahn),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알바 알토(Alva Alto)등과 같은 성공한 건축가들의 재료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재료에 관한 내용을 디자인 작업에

포함시킴으로서 디자인 교육을 더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

한국 현대 건축물에 대해 많은 서적과 자료에서 그 건축적 특성이나 규모, 공간 구성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건축물을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 내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으며 단순히 추측을 통한 인지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내 외부에 사용된 마감 재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비한 상황²⁾을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 이래 한국 현대 건축물의 마감 재료 사용을 용도별, 위치별, 연대별로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물에 사용된 내 외부 마감 재료의 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건축 마감 재료의 재질감이 주는 긴장도, 마감 재료가 주는 사회적 이미지와 비교하여 각각의 마감재료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³⁾ 최근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보다는 외관과 내부의 리노베이션이 성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건축 설계와 시공에서 마감 재료의 선정 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1) A.C.Antoniades, Poetics of Architecture, 도서출판국제, 김경준 역, 1994, p.231

2) 지금까지 건축 마감 재료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의 인식은 많은 업체의 노력과 정보화에 힘입어 어느 시대에나 높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관계된 선행연구는 건축 마감 재료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6호, 물성표현으로서 긴장도의 정량적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6호를 들 수 있다.

* 정희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이래 한국 현대 건축 작품 중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수상작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사용된 마감 재료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업무, 교육, 종교, 문화 집회와 주거 공간의 용도별로 각각의 수상작을 분류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외관 재료에만 편중된 현재까지의 연구와는 대별되게 외부와 내부에 사용된 각각의 마감 재료, 즉 외부의 파사드, 입구, 내부의 로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내 외부의 연관 관계 및 차별성을 재료 선정의 예를 통해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외장재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찾을 수 있는데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해 낸 재료를 토대로 하여 마감 재료의 연대별 사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밖에 건축 마감 재료의 사용에 있어 사회적 영향 및 경제성, 시대적 추세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건축 재료의 재질감과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건축마감 재료 고유의 긴장도 수치를 연결하여 상관관계를 서술하였다.

2. 건축물 용도별 마감 재료 분석

2.1. 분석의 기준 및 과정

(1) 작품 선정의 기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대 건축물 중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수상작⁴⁾을 중심으로-이 시대의 대표하는 사례들로 간주하고 -건축물 용도별로 각각의 파사드, 주출입구, 내부 로비의 주된 건축 재료를 분석하였다.

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제 1회 한국 건축전에서 주거, 산업, 문화, 공공, 기념 건축상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고 수상한 건축가협회상 182점과 건축사협회의 주최의 수상작 151점을 중심으로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대개 주거, 업무, 문화, 교육, 종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 건축전의 시상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각각 O, E, R, C, H로 기호화 하여 선정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나누어 1970년부터 현재까지 내 외부 마감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업무 공간 66개, 문화 집회 공간 30개, 교육 공간 30개, 종교 공간 15개, 주거 공간 17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분석의 과정

사용자와 건축물의 주된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건물 외부의 파사드, 내부의 로비, 내 외부의 상호 연결 공간인 입구로 나누어 그 위치별로 마감 재료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으며 표에서 0-78-1은 1978년에 건축된 업무용도의 건물이고 분석의 대상에서 첫 번째 임을 의미하여 내부 로비공간에서 화강석/유리/흡음텍스는 바닥/벽/천정의 재료를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다.

또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 오면서 각각의 건물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나 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 중, 문헌 자료에 한 시대를 대표했다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재료의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2. 업무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업무시설은 주로 자기질 타일, 화강석, 붉은 벽돌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70년대에는 자기질 타일이 주로 외장에 사용되었고 80년대에 들어와 화강석과 붉은 벽돌의 사용이 증가하고 알루미늄 패널 등의 사용이 나타났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의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대적 이미지의 재료를 선호하고 기술적 성능의 우수성이 표현된 것이다. 또한 재료 자체의 기능적 성능을 떠나 실험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내후성 강판, 적삼목, 반사 유리의 사용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입구는 외관의 전체 입면 재료와 거의 같은 재료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파사드는 전체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외부 입구와 로비는 인간의 시각과 촉각 등 감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외부 입구의 재료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로비의 벽과 바닥은 대부분 화강석 물갈기로, 동일 재료와 동일 마감을 하는 것이 관습적이었고 90년대 이후 투명 유리 및 반사 유리 사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재료에 대한 실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업무 공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옥 건물에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로비에서의 재료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업무 시설은 용도가 가진 본래의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90년대 이후 유리 투명성의 은유적 이미지와 어울려 유리 사용이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더욱 증가되고 있다.

4)건축사 협회에서는 1971년부터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후진 양성과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건축 작품전을 운영해 왔으며 1994년부터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건축가 협회상은 1979년에 제정되어 매 해당년도에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가치있는 작품 7점을 선정하여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에게 시상한다.

<표 1> 업무 공간의 미감 재료 사용 분석표

| 분류 | 작 품 명 | Facade | Entrance | Lobby(마감재료/마감방법) |
|-------------|--------------|-------------------------|---------------------|-----------------------------|
| O - 78 - 1 | 한일은행 포항지점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대리석/몬타일/텍스 |
| O - 78 - 2 | 일신제강 본사사옥 | 자기질외장타일 | 자기질외장타일 | 화강석 |
| O - 78 - 3 | 케미칼 별당 | 자기질외장타일 | 자기질외장타일 | 화강석/풀갈기/자기질타일/알루미늄 천장재 |
| O - 78 - 4 | 국동빌딩 | 자기질외장타일,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 |
| O - 79 - 5 | 샘터사 사옥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화강석 | 붉은 벽돌 |
| O - 79 - 6 | 한국증권거래소 | 화강석, 열선 반사유리 | 유리/화강석 | PC페널 |
| O - 80 - 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스틀 시트 | 화강석/ 붉은 벽돌/ 페인트 |
| O - 80 - 8 | 한국의환은행본점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화강석/버너구이, 타일 |
| O - 80 - 9 | 한일은행본점 | 알루미늄페널, 열선 흡수유리 | 알루미늄페널, 열선 흡수유리 | 대리석/암면 흡음텍스 |
| O - 81 - 10 | MBC여의도스튜디오 | 타일, 반사유리 | 타일 반사유리 | 화강석/대리석/암면 흡음천장재 |
| O - 81 - 11 | 조선인터내셔널사옥 | 자기질외장타일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타일/자기질 타일, 수성페인트/목재시아딩 |
| O - 81 - 12 | 한국증권금융사옥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82 - 13 | 한국교육개발원신관 | 유리 | 자기질 타일, 수성페인트 | 타일/페인트/유리 |
| O - 82 - 14 | 보루네오 가구전시장 | 스테인리스 강판 | 유리 | 카펫/유리/스페이스프레임 노출 |
| O - 83 - 15 | 영풍빌딩 | 본타일 | 본타일, 유리 | 화강석/AL 천정판 |
| O - 83 - 16 | 춘천문화방송 | 자기질외장타일, 열선반사유리 | 자기질외장타일, 유리 | 대리석/나무/페인트 |
| O - 83 - 17 | 선콘 가든 빌딩 | 붉은 벽돌, 유리 | 붉은 벽돌, 유리 | 카펫/나무 |
| O - 84 - 18 | 한국행인천지점 | 화강석, 반사유리 | 유리 | 화강석/AL 철강판 |
| O - 84 - 19 | 고운빌딩 | 자기질외장타일, 열선반사유리 | 열선 반사유리 | 반사유리, 타일 |
| O - 85 - 20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대리석/화강석/AL 철정판 |
| O - 85 - 21 | 경동산업사옥 | 알루미늄 복합페널 | 알루미늄 복합페널 | 화강석/AL 철정판 |
| O - 87 - 22 | 럭키금성다동빌딩 | 자기질외장타일, 반사유리 | 자기질외장타일, 반사유리 | 화강석/유리/알미늄모듈러 실링, 백페인티드 글라스 |
| O - 87 - 23 | 국립 청주 박물관 | PC Cone 페널, 한식기와 | 화강석/PC 페널 | 암스트롱타일, 화강석, 피라이트몰탈, 스틸그린 |
| O - 87 - 24 | 삼성종합기술원 | 화강석 타일, 유리 | 화강석 타일, 유리 | 화강석/ 뽀黜제, 암면계천장재 |
| O - 88 - 25 | 연경빌딩 | 붉은 벽돌, 유리 | 붉은 벽돌, 유리 | 카펫/천벽지 |
| O - 88 - 26 | 동양상호신용금고사옥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버너구이 |
| O - 88 - 27 | TCA 빌딩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화강석/유리/뽀黜제, 카페트 |
| O - 89 - 28 | 한국은행 본점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대리석 |
| O - 89 - 29 | 삼성 침답기술 연구소 | 화강석, 석재타일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PC |
| O - 89 - 30 | 한국공항터미널 | 알루미늄 복합페널, 반사유리 | 알루미늄 복합페널, 반사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88 - 31 | 동승동 J&S 빌딩 | 시멘트 물탈, 철골 노출, 유리 | 철골 노출, 유리 | 화강석/유리/AL 천정판 |
| O - 90 - 32 | 눌원빌딩 | 알루미늄 복합페널 | 알루미늄 복합페널,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1 - 33 | 백산 125 | 알루미늄 복합페널 | 알루미늄 복합페널, 유리 | 대리석/암면흡음 천장재 |
| O - 91 - 34 | 일신방직 사옥 | 반사유리 | 알루미늄 복합페널, 유리 | 화강석/대리석/AL 판넬, 유리 |
| O - 91 - 35 | MBC 인력개발센터 | 자연석 | 자연석 | 화강석/석고보드 위 페인트 |
| O - 91 - 36 |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대리석, 유리 |
| O - 92 - 37 | 남한강 빌딩 | 알루미늄 복합페널, 반사유리 | 알루미늄 복합페널,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2 - 38 | 데이콤 종합연구소 | 알루미늄 복합페널 | 알루미늄 복합페널 | 화강석/유리, 페인트/AL 천장재 |
| O - 92 - 39 | 일동 제약 사옥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2 - 40 | 한빛 빌딩 | 화강석, 반사유리 | 화강석, 반시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3 - 41 | 큰길 타워 | 반사유리 | 타일/수성페인트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3 - 42 | 현법 제판소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본타일 |
| O - 93 - 43 | SBS 등촌동 스튜디오 | 알루미늄 복합페널, 유리 | 유리 | 화강석/뽀黜제 |
| O - 93 - 44 | 쌍용투자증권 사옥 | 화강석, 반사유리 | 화강석, 반시유리 | 화강석, 카페트/유리/AL 천정재 |
| O - 93 - 45 | 명보포리자 | 화강석, 반사유리 | 화강석, 반시유리 | 화강석/라이네이트/Fabric |
| O - 94 - 46 | 조선일보사 평촌사옥 | 알루미늄 복합페널, 반사유리 | 알루미늄 복합페널 | 페인트/AL 천장재 |
| O - 94 - 47 | 시화빌딩 | 화강석 | 화강석 | 더스트롱sheet/페인트/흡음텍스 |
| O - 94 - 48 | 삼성 국제경영연구소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목제페널/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
| O - 95 - 49 | 대법원청사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6 - 50 | 건축문화사옥 | 드라이이비트 | 콘크리트, 드라이이비트 | 수성페인트 |
| O - 96 - 51 | 부산방송국리노베이션 | 알루미늄 복합페널, 화강석 | 알루미늄 복합페널, 화강석 | 비닐계타일/암면 천장재 |
| O - 96 - 52 | 신도리코이신공장본관 | 석재 뽀黜, 유리 | 석재 뽀黜, 유리 | 화강석/암면 흡음판 |
| O - 96 - 53 | LG화학 기술연구원 | 화강석, 반사유리 | 화강석, 반시유리 | 타일/페인트 |
| O - 96 - 54 | 코오롱 타워 | 유리, 알루미늄 복합페널 |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시트/암면흡음 천장재 |
| O - 96 - 55 | 불루힐 백화점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7 - 56 | 공간신사옥 | 유리, 노출콘크리트 | 유리,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 O - 97 - 57 | 씨네 플러스 | 알루미늄 채널, 유리, 노출콘크리트 | 알루미늄 채널, 유리, 노출콘크리트 | 타일/수성페인트 |
| O - 97 - 58 | 고려포리미 사옥 | 붉은 벽돌, 화강석 | 붉은 벽돌, 화강석 | 화강석/페인트/석고보드 위 수성 페인트 |
| O - 98 - 59 | 정립건축 사옥 | 유리, 알루미늄 패널 | 유리, 노출콘크리트 | 화강석 |
| O - 96 - 60 | 두산타워 | 법랑페널, 반사유리 | 법랑페널, 반사유리 | 데코타일/페인트, 무늬목/페인트 |
| O - 99 - 61 | 데이콤빌딩 신축공사 | 유리 |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O - 99 - 62 | 웰콤시티 | 내후성강판, 노출콘크리트 | 내후성강판, 노출콘크리트 | 목재플로임/노출콘크리트, 콘크리트 치장블럭 |
| O - 99 - 63 | 동아미디어 센터 | 유리, 알루미늄 복합페널 | 유리, 알루미늄 복합페널 | 화강석/알루미늄 시트, 인조석/석고보드 위 페인트 |
| O - 02 - 64 | 코리아 디자인 센터 | 알미늄 패널, 유리 | 유리 | 타일/알미늄페널/유리 |
| O - 03 - 65 | 메스에스에이지 사옥 | 대리석, 적삼목 | 적삼목 | 적삼목/타일 |
| O - 03 - 66 | 시몬느 사옥 | 압축성형시멘트, 내후성강판, 적삼목, 유리 | 유리 | 타일/압축성형시멘트 유리/ 유리 |

<표 2> 문화 집회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분석표

| 분류 | 작품명 | Facade | Entrance | Lobby |
|-------------|---------------------|------------------------|----------------|--------------------------|
| C - 70 - 1 | 광주시민회관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테라조/프린트합판/코팅합판 |
| C - 71 - 2 | 경북체육관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타일 |
| C - 72 - 3 | 국립극장 |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쁨칠재 |
| C - 79 - 4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화강석 |
| C - 81 - 5 | 충무공기념관 | 자기질 외장타일 | 자기질 외장타일 | 타일/수성페인트 |
| C - 84 - 6 | 인천상록작전기념관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타일 |
| C - 85 - 7 | 전주박물관 | 자연석 | 자연석, 유리 | 수성페인트 |
| C - 86 - 8 | 울림피공원 체조경기장 | 알루미늄복합패널, 유리, 유리블록 | 유리, 유리블록 | 석면타일/인코트/알루미늄천장재 |
| C - 86 - 9 | 독립기념관 | 본타일, 유리 | 본타일, 유리 | 화강석/본타일 |
| C - 86 - 10 | 국립현대미술관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페인트 |
| C - 89 - 11 | 한국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 제물치장 콘크리트 | 제물치장 콘크리트, 호박돌 | 타일 |
| C - 90 - 12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 |
| C - 90 - 13 | 삼성체육관 | 알루미늄 복합패널, 반사유리 | 반사유리, 스틸 | 화강석 |
| C - 90 - 14 | 인천시립박물관 |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본타일 |
| C - 91 - 15 | 경주 선제미술관 | 화강석, 알루미늄 판 | 화강석, 알루미늄 판 | 트래버틸/오크페널, 페블릭 패널/석고보드 |
| C - 92 - 16 | 어흘리 박물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화강석/화벽/석고보드 위 페인트 |
| C - 93 - 17 | 광주문화예술회관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파리아트 |
| C - 93 - 18 | 청도농구 박물관 | 노출콘크리트, 붉은 벽돌 | 노출콘크리트, 붉은 벽돌 | 석재타일/수성페인트 |
| C - 93 - 19 | 극립부여박물관 |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C - 97 - 20 | 동승동 문화공간 |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 C - 97 - 21 | 센터회랑 | 베이스패널 | 베이스패널 | 목재플로링/수성페인트 |
| C - 97 - 22 | 울산현대예술관 | 화강석, 드라이비트, 유리 | 화강석 | 화강석/드라이비트, 타일/석고보드위수성페인트 |
| C - 98 - 23 | 오포스 콘서트홀 | 골함석, 타공 철판, 유리, 노출콘크리트 | 타공 철판, 유리 | 석재타일 |
| C - 98 - 24 | 김옥길 기념관 |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 C - 98 - 25 | 아트선재 센터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 화강석 |
| C - 99 - 26 | 서미 갤러리 | 시멘트 압출성형패널, 천벽돌, 유리 | 시멘트 압출성형, 유리 | 타일 |
| C - 00 - 27 | 의재미술관 | 목판재, 유리, 티타늄 아연판 | 목판재, 유리 | 페인트/석고보드 위 페인트 |
| C - 00 - 28 | 인사아트센터 | 유리, 알루미늄 패널 | 유리 | 마퀴 석재타일 |
| C - 02 - 29 |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 타일 |
| C - 03 - 30 | 포스코 역사관 | Hc Panel 유리 | 유리 | 파리싱 타일 |

<표 3> 교육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분석표

| 분류 | 작품명 | Facade | Entrance | Lobby |
|-------------|-----------------|-------------------------|------------------|-------------------------|
| E - 77 - 1 | 단국대법정체육관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 E - 78 - 2 | 덕성여대가정관, 약학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 E - 81 - 3 | 충북대학교 농학관 | 변색 벽돌 | 화강석, 변색 벽돌 | 타일 |
| E - 83 - 4 | 울산대학교 대학회관 | 자기질 외장타일 | 자기질 외장타일 | 페인트 |
| E - 84 - 5 | 계명대학생회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인조석현장갈기/타일, 성페인트/암면천장재 |
| E - 84 - 6 | 카톨릭사회교육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화강석/인코트쁨칠마감 |
| E - 84 - 7 | 이화여대 도서관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수성페인트 |
| E - 84 - 8 | 성심여대 소피비라관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타일 |
| E - 86 - 9 | 성심여대 강당 | 붉은 벽돌, 유리, 유리 벽돌 | 붉은 벽돌, 유리 | 화강석 |
| E - 86 - 10 | 계성여자고등학교 | 붉은 벽돌, 유리 | 붉은 벽돌, 유리 | 타일/수성 페인트 |
| E - 86 - 11 |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 붉은 벽돌, 유리 | 붉은 벽돌 | 화강석 |
| E - 86 - 12 | 단국대 퇴계기념 중앙도서관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페인트 |
| E - 86 - 13 | 성균관대 체육관 | 자기질 외장타일, 반사유리 | 반사유리 | 타일 |
| E - 86 - 14 | 인하대 학생회관 | 자기질 외장타일, 반사유리 | 자기질 외장타일, 반사유리 | PC타일/밀타일/텍스 |
| E - 87 - 15 | 국회 도서관 | 화강석, 열선 흡수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AL판넬/AL천장판 |
| E - 87 - 16 | 경원대 본관 및 강의동 | 붉은 벽돌, 화강석버너구이, 스테인리스스틸 | 붉은 벽돌, 화강석 | 화강석/버너구이/석재쁨칠 |
| E - 88 - 17 |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수성페인트/쁨칠제 |
| E - 88 - 18 | 숭실대 과학관 | 열선 반사유리, 자기질 외장타일 | 열선 반사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천장재 |
| E - 89 - 19 | 포항공과대학 실내체육관 | 알루미늄 복합패널, 반상 유리 | 알루미늄 복합패널, 반사 유리 | 화강석/알루미늄 판넬/AL천장판 |
| E - 89 - 20 | 건국대상하기념관 | 화강석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아스타일/인코트, 수성페인트/텍스 |
| E - 90 - 21 | 한밭도서관 | 화강석, 유리 | 유리, 화강석 | 화강석/본타일 |
| E - 93 - 22 | 이화여대 행정관 | 화강석 | 화강석 | 카페트/수성페인트/AL천장판 |
| E - 94 - 23 | 국민대성곡도서관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대리석/수성페인트/석고보드 |
| E - 97 - 24 | 말알학교 | 알루미늄 패널, 유리 | 유리, 노출콘크리트 | 타일/알루미늄 패널, 노출콘크리트 |
| E - 98 - 25 | 광주카톨릭대학교 | 노출콘크리트, 붉은 벽돌 | 노출콘크리트 | 목재사이딩 |
| E - 98 - 26 | 백남학술정보관 | 화강석 | 화강석 | 화강석/쁨칠재 |
| E - 99 - 27 | 명지대 방목기념관 및 행정동 | 콘크리트 면처리/알루미늄 패널 | 콘크리트 면처리/유리 | 석재타일 |
| E - 00 - 28 | 은평구립도서관 | 노출콘크리트, 유리 | 노출콘크리트, 유리 | 화강석/노출콘크리트/암면흡음천장재 |
| E - 01 - 29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스포팅페이스블럭, 드라이비트, 노출콘크리트 | 화강석, 드라이비트 | 타일 |
| E - 02 - 30 | 중부대학교 건원관 | 화강석, 유리, 노출콘크리트 | 노출콘크리트 유리 | 타일/노출콘크리트유리/노출콘크리트 |

<표 4> 종교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분석표

| 분류 | 작 품 명 | Facade | 외부입구 | Lobby |
|-----------|-------------------|----------------------|----------------|---------------------------|
| R -74 -1 | 노량진 교회 | 붉은 벽돌, 페인트 | 페인트 | 화강석을같이/수성페인트/수성페인트 |
| R -76 -2 | 청파동 성당 | 붉은 벽돌, 페인트 | 붉은 벽돌, 페인트 | 타일/수성페인트/목재 사이딩 |
| R -79 -3 | 마산 성당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자연석/붉은 벽돌/페인트 |
| R -79 -4 | 정동제일감리교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화강석 | 붉은 벽돌 |
| R -80 -5 | 한강성당 | 붉은 벽돌 노출쌓기위 실리콘 스프레이 | 붉은 벽돌, 유리 | 실리콘 스프레이 |
| R -83 -6 | 전주 서문교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카펫/붉은 벽돌 |
| R -84 -7 | 덕수교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스테인드글라스 | 대리석/붉은 벽돌 |
| R -85 -8 | 천주교 불광동 교회 | 변색벽돌 | 변색벽돌 | 화강석 |
| R -85 -9 | 공주 황새바위 순교탑 및 경당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유리 | 화강석 |
| R -86 -10 |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본타일/수성페인트 |
| R -91 -11 | 율전교회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목재프레임 노출 |
| R-91-12 | 남천성당 | 붉은 벽돌, 반사유리 | 붉은 벽돌, 반사유리 | 화강석/붉은 벽돌 |
| R-00-13 | 가나한 교회 | 노출콘크리트, 골강판 | 노출콘크리트, 골강판 | 화강석/석고보드 위 페인트 |
| R-00-14 | 천주교 인보성체 수도회 전주성당 | 붉은 벽돌 | 붉은 벽돌 | 타일/붉은 벽돌, 수성페인트 |
| R-01-15 | 원당성당 | 드라이비트,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 드라이비트 | 화강석/노출콘크리트, 유리, 화강석/수성페인트 |

<표 5> 주거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분석표

| 분류 | 작 품 명 | Facade | 거실 | 침실 |
|---------|--------------|------------------------|----------------------------|-------------------|
| H-77-1 | 이선생주택 | 수성페인트, 붉은 벽돌, 기와 | 목재(합판)마루/벽지/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78-2 | 영동L씨 댁 | 붉은 벽돌, 기와 | 목재마루/벽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84-3 | 갈현동 소나무집 | 목재(육송)패널 | 벽지/천장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85-4 | 이태원테라스하우스 | 변색벽돌/기와 | 목재마루/벽지/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88-5 | 서대문 주택 | 붉은 벽돌, 앤스팔트 쉼글 | 목재마루/벽지/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2-6 | 성북동K씨 댁 | 붉은 벽돌, 알루미늄 주물판 | 목재패널, 벽지/천정지, 목재사이딩, 목재몰딩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3-7 | 수출당 | 드라이비트 | 온돌 마루판/벽지/천정지 | 종이장판지/벽지/천정지 |
| H-93-8 | 서대신동주택 | 시멘트벽돌 위 페인트 | 온돌 마루판/페인트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5-9 | 택형이네집 | 시멘트 모터스포레이, 옹기파편 | 목재마루/시멘트모터스포레이/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7-10 | 의정각 | 노출콘크리트 | 목재마루/목재파티, 벽지/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9-11 | 임거당 | 미송판, 노출 콘크리트 | 온돌마루판/노출콘크리트, 철재프레임/미송판 | 온돌마루판/벽지, 창호지/천정지 |
| H-99-12 | 수백당 | 드라이비트 | 온돌마루판/벽지/천정지 | 장판지/벽지/천정지 |
| H-99-13 | 한호제 | 콘크리트블록/유색블록/인조슬레이트지붕 | 우드풀로링/석고보드, 유색블록/아크릴, 천정지 | 우드풀로링/석고보드/천정지 |
| H-00-14 | 미재루 |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지붕용 경량패널 | 온도마루판/벽지/천정지 | 온도마루판/벽지/천정지 |
| H-00-15 | 멀티박스하우스 | 유리/미송/베이스패널 | 우드풀로링/금속, 목재, 노출콘크리트/반투명유리 | 우드풀로링/벽지/천정지 |
| H-03-16 | 분당 C-11-4-12 | 모노쿠슈(리임계천연칼라몰탈-스크립마감) | 온돌마루/페인트/페인트 | 온돌마루/벽지/벽지 |
| H-03-17 | 아이파크 삼성동 | 유리, 판넬 | 온돌마루/ | 온돌마루/ |

2.3. 문화 집회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문화 집회 시설은 다양한 재료와 기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형태적인 다양성이 요구되는 건물이다. 70년대에는 외장 재료로 수성 페인트, 화강석, 붉은 벽돌이 사용되었고 80년대에는 벽돌의 사용보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 노출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90년대에는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골함석, 목판재 등 다양한 재료의 시도가 증가했으며 화강석의 외관재료로의 사용은 꾸준하였다. 외부 입구는 파사드의 재료와 거의 같은 선택되었고 90년대에 와서 유리, 철판, 목재, 노출 콘크리트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성장과 다양성을 주된 원리로 하는 디자인 경향이 원인으로 보인다. 내부 로비의 경우 화강석의 사용이 대부분이고 70년대에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 80년대에는 수성페인트, 자기질 타일, 테라코타의 사용이 눈에 띄고 90년대에 와서는 문화 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외부 재료의 내부 재료의 동시 사용이 두드러진다.

2.4. 교육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70년대 교육시설의 붉은 벽돌과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을 유지하였다. 80년대 교육 시설의 외장은 붉은 벽돌, 자기질 타일, 화강석이 주류를 이루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 벽돌 외장이 점차 줄어들고 블록과 노출 콘크리트, 화강석의 사용이 빈번해졌다. 이는 교육 시설의 주된 재료가 벽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재료의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외부 입구 역시 파사드와 동일 재료를 사용하였고 90년대에 들어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여 입구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단편적인 사용에 그쳤다. 내부 로비 역시 화강석의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화강석의 사용은 기능상 가장 경제적이고 공공 공간을 대표하는 재료 중의 하나이며 벽면은 수성페인트와 알루미늄 패널의 사용도 90년대 이후 많이 나타났다. 교육 시설의 일반적 교실 단위유닛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형태적 반복으로 인해 주된 재료가 벽돌인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2.5. 종교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종교시설 역시 벽돌이 건물 외관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90년대 이후 노출 콘크리트, 드라이버트 등으로 재료가 변화하였는데 이는 종교 건물의 상징적 형태를 표현하기에 가소성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 입구는 전체적으로 파사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로비에는 벽돌, 자기질 타일, 수성페인트, 화강석, 목재, 대리석, 드라이버트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목재의 사용과 대리석의 사용이 주목된다. 종교 건물의 경우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건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건축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내부 공간에 있어 딱딱한 표면의 목재, 나무벽돌을 사용하여 종교 공간의 기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2.6. 주거 공간의 마감 재료 사용

주거 공간은 이상의 용도와는 상반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개인의 휴식과 가족의 단란한 모임을 주된 역할로 한다. 외관 재료로는 70년대부터 계속해서 붉은 벽돌과 같이 친근감을 주는 전통적인 재료와 목재 패널을 사용하고 석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특히 주거 공간은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공간 표현으로 90년대에 들어서 드라이버트,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콘크리트 블록 등 기존에 주거 건축에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 재료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주거 시설의 내부 공간은 다른 용도와는 달리 거실 부분과 침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주로 종이를 주 재료로 하는 벽지, 장판지가 일반적이고 실크벽지, 무늬목 등의 사용이 보였다. 내부 공간 역시 최근에 와서는 지루함에 긴장을 주는 요소로 콘크리트나 금속, 아크릴과 같은 산업 재료를 거실에 사용하기도 하며 침실 공간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예도 종종 보이고 있다.

3. 마감 재료의 이미지와 긴장도⁵⁾

3.1. 마감 재료 사용 분석

이상에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대 건축물 중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수상작을 중심으로 건축물 용도별로 각각의 파사드, 주출입구, 내부 로비의 주된 건축 재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화강석과 붉은 벽돌의 사용재료가 주류를 이루었고 유리와 알루미늄패널,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 등의 약간의 변화만을 보였으며 이는 국내의 다양한 재료 공급 부족과 건축가들의 타성적 재료 사용에 의한 결과

<표 6> 업무용도 건축물의 연대별 위치별 마감 재료 및 긴장도

| 분류 기호 | 용 도 | 시기 | 외관 입면 | 외부 입구 | 내부 로비 |
|----------|----------|----------------|---|--|--|
| O | 업무 시설 | 70 년대 | 자기질타일(2.47) <u>화강석(2.99)</u> 붉은벽돌(2.15) |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붉은벽돌(2.15) | <u>화강석(2.99)</u> 붉은벽돌(2.15) 대리석(2.43) 자기질타일(2.47) |
| | | 80 년대 |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붉은벽돌(2.15) <u>알루미늄패널(2.77)</u> 시멘트몰탈(1.97) |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붉은벽돌(2.15) <u>알루미늄패널(2.77)</u> 유리(3.17) | <u>화강석(2.99)</u> 붉은벽돌(2.15) 자기질타일(2.47) <u>유리(3.17)</u> 대리석(2.43) |
| | | 90 년대 이후 | 화강석(2.99) <u>알루미늄패널(2.77)</u> <u>반사유리(3.23)</u> 드라이버트(1.88) 노출콘크리트(2.41) <u>내후성강판(2.64)</u> 적삼목(1.75) | 화강석(2.99) <u>알루미늄패널(2.77)</u> <u>유리(3.17)</u> 반사유리(3.23) 노출콘크리트(2.41) <u>내후성강판(2.64)</u> 적삼목(1.75) | 화강석(2.99) 자기질타일(2.47) 페인트(1.73) 노출콘크리트(2.41) 적삼목(1.75) <u>유리(3.17)</u> 대리석(2.43) |

<표 7> 교육용도 건축물의 연대별 위치별 마감 재료 및 긴장도

| 분류 기호 | 용 도 | 시기 | 외관 입면 | 외부 입구 | 내부 로비 |
|----------|----------|----------|--|---|--|
| E | 교육 시설 | 70 년대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자기질타일(2.47) |
| | | 80 년대 | 붉은벽돌(2.15)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u>알루미늄패널(2.77)</u> |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붉은벽돌(2.15) <u>유리(3.17)</u> 드라이버트(1.88) | <u>화강석(2.99)</u> 수성페인트(1.73) 붉은벽돌(2.15) 자기질타일(2.47) |
| | | 90 년대 | 화강석(2.99) <u>블록(2.60)</u> 노출콘크리트(2.41) <u>알루미늄패널(2.77)</u> 드라이버트(1.88) 유리(3.17) | <u>화강석(2.99)</u> <u>유리(3.17)</u> 노출콘크리트(2.41) 드라이버트(1.88) | <u>알루미늄패널(2.77)</u> 노출콘크리트(2.41) 대리석(2.43) 목재 사이딩(1.93) 카펫타일(2.18) |

<표 8> 문화집회용도 건축물의 연대별 위치별 마감 재료 및 긴장도

| 분류 기호 | 용 도 | 시기 | 외관 입면 | 외부 입구 | 내부 로비 |
|----------|----------------|----------------|--|--|--|
| C | 문화 집회 시설 | 70 년대 | 붉은벽돌(2.15) <u>화강석(2.99)</u> 수성페인트(1.73) | 붉은벽돌(2.15) <u>화강석(2.99)</u> 수성페인트(1.73) | 붉은벽돌(2.15) 화강석(2.99) |
| | | 80 년대 | <u>알루미늄패널(2.77)</u> 자기질타일(2.47) 노출콘크리트(2.41) 화강석(2.99) 유리(3.17) | <u>노출콘크리트(2.77)</u>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유리(3.17) | <u>화강석(2.99)</u> 자기질타일(2.47) 수성페인트(1.73) |
| | | 90 년대 이후 | 노출콘크리트(2.41) <u>알루미늄패널(2.77)</u> 골합석(1.79) 목판재(1.75) <u>화강석(2.99)</u> 유리(3.17) 반사유리(3.23) 칠판(2.91) 붉은벽돌(2.15) 드라이버트(1.88) | 노출콘크리트(2.41) <u>칠판(2.91)</u> 유리(3.17) 목판재(1.75) <u>반사유리(3.23)</u> <u>화강석(2.99)</u> 붉은벽돌(2.15) 암출성형시멘트패널(2.05) | 노출콘크리트(2.41) 화강석(2.99) 대리석(2.43) 수성페인트(1.73) 드라이버트(1.88) 직물(2.18) 석고플라스터(1.55) 목재(1.75) |

5)<표 6> ~ <표 10>에 명시된 긴장도 수치는 각 재료의 마감 방법, 시공방법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분석된 각 재료의 고유 긴장도로서 긴장도의 사회적 심리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전된 연구를 향후 진행하겠다.

<표 9> 종교용도 건축물의 연대별 위치별 마감 재료 및 긴장도

| 분류 기호 | 용 도 | 시기 | 외관 입면 | 외부 입구 | 내부 로비 |
|----------|----------|----------------|--|--|---|
| R | 종교 시설 | 70 년대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화강석(2.99) | 붉은벽돌(2.15) 목재(1.75) 대리석(2.43) 자기질타일(2.47) 수성페인트(1.73) |
| | | 80 년대 | 붉은벽돌(2.15) 화강석(2.99) 유리(3.17) | 붉은벽돌(2.15) 화강석(2.99) 유리(3.18)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대리석(2.43) 카펫타일(2.18) 자기질타일(2.47) 화강석(2.99) |
| | | 90 년대 이후 | 붉은벽돌(2.15) 노출콘크리트(2.41) 드라이비트(1.88) 수성페인트(1.73) 반사유리(3.23) 철판(2.91) | 붉은벽돌(2.15) 노출콘크리트(2.41) 드라이비트(1.88) 수성페인트(1.73) 반사유리(3.23) 철판(2.91)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화강석(2.99) 유리(3.17) 자기질타일(2.47) 목재(1.75) 노출콘크리트(2.41) |
| | H | 70 년대 | | | |
| | | 80 년대 | | | |
| | | 90 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는 철판, 골합석 같은 재료의 다양한 사용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형태의 조형성보다 다양한 건축 재료의 물성 표현을 통한 디자인이 우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장 재료로는 일반 건물의 경우 붉은 벽돌과 페인트, 타일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붉은 벽돌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마감 재료 사용이 관습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건축 잡지에 소개된 작품들의 경우 설계 개요 란에 건축 재료나 구조에 대한 표시가 거의 없어 재료와 구조에 대한 시대적 무관심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용도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재료 사용의 변화가 거의 없이 같은 재료의 반복적 사용이 유지되다가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마감 재료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70년대에는 바닥, 벽, 천정의 재료 구분이 철저하였으나 점차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같은 재료를 바닥과 벽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정 재료에 대한 구체적 고려는 보이지 않았고 바닥과 벽 재료를 위주로 마감 재료가 발전, 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2. 긴장도와 사회적 이미지

건축 재료의 재질감이 주는 긴장도의 계량화를 통한 수치의 표현은 실제 건축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각각의 공간이 요구하는 긴장도의 수준에 맞는 재료의 선정을 가능하게 한다. <표 6>과 <표 7>, <표 8>, <표 9>, <표 10>에서 주요 재료 뒤 팔호 안의 수치는 선행 연구에서 추출된 긴장도⁶⁾의 수치를 적은 것이다. 업무 시설의 주된 재료를 위치별로 파악했을 때 최근 들어, 파사드는 2.5⁷⁾이상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건축 재료와 권위

<표 10> 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대별 위치별 마감 재료 및 긴장도

| 분류 기호 | 용 도 | 시기 | 외관 입면 | 거실 | 침실 |
|----------|----------|----------|--|---|---|
| H | 주거 공간 | 70 년대 | 붉은벽돌(2.15) 수성페인트(1.73) 기와 | 목재마루(1.79) 종이벽지(1.88) 실크벽지(2.15) | 장판지(1.88) 종이벽지(1.88) 실크벽지(2.15) |
| | | 80 년대 | 붉은벽돌(2.15) 목재페널(1.75) 아스팔트 쉼글 기와 | 목재마루(1.79) 종이벽지(1.88) 실크벽지(2.15) 목재사이딩(1.93) | 장판지(1.88) 실크벽지(2.15) 종이벽지(1.88) |
| | | 90 년대 | 드라이비트(1.88) 노출콘크리트(2.41) 시멘트모르터(1.97) 목재페널(1.75) 베이스페널(2.05) 수성페인트(1.73) 붉은벽돌(2.15) 블록(2.60) 금속(3.30) 지붕옹경량페널 인조슬레이트지붕 | 목재마루(1.75) 벽지(2.15) 블록(2.60) 베이스페널(2.05) 아크릴(2.49) 금속(3.30) 수성페인트(1.73) 샌드블리스터유리(2.14) | 목재마루(1.75) 종이벽지(1.88) 석고플라스터 (1.55) 수성페인트(1.73) |

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외부 주출입구 역시 파사드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나 특히 사람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긴장도가 낮은 목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로비 역시 긴장도가 높고 낮은 재료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덧붙여 개설 사무공간은 긴장도가 2.5이하의 안정된 분위기의 건축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교육 시설은 업무 시설과 함께 전체적으로 외부에 자기질타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질감의 차원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설의 파사드는 권위적인 이미지와 유사한 신뢰감을 주는 재료와 업무시설보다는 다소 긴장도 수치가 낮은 2에서 2.5 정도의 긴장도를 가진 재료의 사용이 적절하였고 장시간 교육 시설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건축 재료를 내부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는 악센트를 현대적 이미지와 연결시켜 부재료로 사용하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그 예로 알루미늄페널을 들 수 있다.

문화집회 시설은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자연친화적인 재료보다는 다소 인공적인 재료를 적용하여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하였다. 분석된 재료는 긴장도 2.5 이상의 건축 재료가 보편적이고 긴장도 수치가 낮은 재료도 함께 사용하여 문화 집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적용, 문화집회 공간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건축 재료로도 표현하고 있다.

종교 시설은 전체적으로 긴장도 수치가 높지 않은 2.5이하의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종교 건축이 추구하는 고전적이고 검소한 이미지와 연결된다. 주로 사용된 붉은 벽돌은 긴

6)건축 마감 재료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6호, 2004, p.43의 <표 6>을 참조하였다.

7)물성 표현으로서 긴장도의 정량적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 6호, 2003, pp.75~76에서 긴장도의 수치를 0에서 5까지로 보고 설문

에 의해 조사하였는데 주로 긴장도 수치가 2와 3 사이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2.5를 긴장도 수치의 중간값으로 보았다. 긴장도 수치 2.5 이상인 건축 재료는 전반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재료이며, 긴장도 수치 2.5 이하의 건축 재료는 긴장도가 낮다고 보았다.

장도 수치 2.15의 재료로서 고전적 이미지와 전통적으로 익숙한 전통적 재료 사용을 통해 친근감을 주고 내부 공간에 주로 적용되는 목재는 교회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적절히 중화시켜 종교 공간 안에서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90년대에 들어 긴장도 수치가 다소 높은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이 눈에 띠는데 이는 콘크리트가 가지는 재료의 형태적 가소성과 현대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현대적 감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주거 시설은 개인적인 재료 선호의 경향이 강한 사적인 용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 긴장도 수치 2.5 이하의 낮은 건축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외관 재료로는 붉은 벽돌과 같이 친근감을 주는 전통적인 재료와 목재 패널을 사용하고 석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드라이비트,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콘크리트 블록 등 긴장도 수치가 다소 높으면서 기존에 주거 건축에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 재료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⁸⁾ 또한 주거 시설의 내부 공간은 주로 벽지, 실크벽지, 장판지, 무늬목 등의 사용이 보였는데 이는 긴장도가 2.5 이하 특히 인간의 피부와 거의 비슷한 재질감을 건축 마감 재료로 선정하여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의 경우 지루함에 긴장을 주는 요소로 콘크리트나 금속, 아크릴과 같은 긴장도가 산업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이래 한국 현대 건축 작품에 사용된 마감 재료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우선 연대별로 70, 80년대에는 화강석과 붉은 벽돌, 자기질 타일이 주로 외장 및 입구 재료로 사용되었고 내부 로비의 재료 역시 별다른 변화 없이 시멘트 몰탈, 타일 등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이 빈번하였다. 90년대에 들어 건축 마감 재료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다양해졌으나 과거 사용되었던 주된 재료의 사용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특히 유리의 두드러진 사용이 돋보였다. 용도별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나 건물의 용도가 갖는 경제성과 규모의 변화에 따라 마감 재료 사용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건축 재료의 사용은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한 것이며 건축가는 오히려 개성적인 감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과 실내디자인 영역에서 마감 재료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마감 재료의 종류와 마감 방법의 다양함, 재료 자체의 고유 재질감과 색상 등의 주관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특성에 따른 적절한 활용이 요구되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건축가가 재료를 선정할 때 건축주로부터 원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이미지를 요구받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형태와 공간을 통한 작업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경제성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마무리한다. 또한 기성 건축가 중에는 소수의 재료를 건축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복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고 또한 새로이 개발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 적용의 예도 최근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마감 재료의 변화를 줌으로써 사회적인 의사의 반영으로서의 현대 건축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내 건축 마감 재료의 생산 및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부성, 건물 외벽 재료의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권 6호, 1986
2. 김소희, 건축 마감 재료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46호, 2004
3. 김소희, 물성 표현으로서 긴장도의 정량적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 6호, 2003
4. 김소희, 비사적 주거의 등장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3권4호, 2002
5. A.C.Antoniades, Poetics of Architecture, 도서출판국제, 김경준 역, 1994
6. 飯塚五郎藏, 건축물의 외벽연구, 도서출판 국제, 김태우 역, 1992
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81호 1975/10, 115호 1977/11, 116호 1978/10, 128호 1979/10, 158호 1982/11, 212호 1986/11, 162호 1981/11, 158호 1982/5, 330호 1996/10, 276호 1992/4, 265호 1991/5, 287호 1993/3, 318호 1995/10, 회원건축설계작품집, 1981,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건축전 작품집, 1991, 1992, 1993, 한국건축 문화대상 작품집, 1994, 1997, 1998, 2000, 2001
8.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 124호 1992/11, 136호 1993/11, 148호 1994/11, 160호 1995/11, 173호 1996/12, 100호 1990/11, 112호 1991/11,
9.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 건축 1876-1990, 기문당, 1994
10.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 건축-사무소건축, 1971
11. 한국건축가협회, 대한민국건축대전 1989
12. 실내건축연감,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2000
13. 이상건축, 9908 / 9912 / 0001 / 0003 / 0004 / 0005
14. 플러스, 9801 / 9803 / 9906 / 0007

<접수 : 2005. 2. 28>

8)최근 발표된 외국 주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새로운 개념을 통한 공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재료의 의장적 사용과 함께 구조적인 면에서의 디지털을 통한 기술을 주거에의 적용, 기능적인 면에서 다목적적인 공간의 유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非私的 주거는 기술적, 재료적 방법에 의해 건축이 가능적으로 발휘될 때, 그 의미를 발한다고 할 수 있다. - 非私의 주거의 등장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3권4호, 2002, p.22